

미얀마  
방정환 기금

## 어린이는 우리에게 주는 하늘의 계시



우리 회원님들을 초대합니다.

미얀마 어린이합창단 공연

10월 26일(토) 오후 4시. 마포 이원문화센터(지하철 마포역 4번 출구)

### 미얀마의 가난한 아이들이 한국에 옵니다



양곤의 빈민지역 <달라>의 아이들. 너무 가난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절에서 운영하는 무료교실에 다니는 아이들입니다.

우리 방정환기금 회원인 민성숙 님이 이곳 아이들이 동요를 모르기에 우리 동요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노래를 가르치다 보니 미얀마에 하나뿐인 어린이합창단이 되었답니다.

미얀마는 쿠데타 후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지경에 합창단 한국공연은 현지에서 큰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노래가 미얀마에 희망의 꽃다발이 되기 바랍니다.

### 강원도민들이 항공료 등 모금



춘천에 사는 민성숙 선생이 거리모금을 벌이고 시민들이 나서 춘천, 원주, 강릉 공연비와 항공료를 모금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민일보'를 비롯해 주간신문 '춘천사람들'이

이미 모금 기사를 내어 성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강원도민들의 십시일반으로 초청이 이루어져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원주 공연(28일), 강릉 공연(29일), 춘천 공연(30일)



## 수렁에 빠진 미얀마 경제



〈주유소 앞에 길게 줄 선 오토바이〉

미얀마는 석유가 나지만 다른 나라에서 사다 쓴다. 정유공장이 없어서이다. 그런데 외국기업 철수로 달리가 부족해 기름을 사오지 못하고 있다. 트럭이 기름을 넣으려면 사흘을 줄 서야 하고 그것도 한번에 20 리터만 넣을 수 있단다.

쿠데타 전엔 1\$에 미얀마 돈 1,300꺄이 지금은 4,900꺄. 제조업이 없어 공산품 대부분을 외국에서 달러로 사와야 하는데 환율이 380%가 올랐다는 뜻이다. 그렇잖아도 아시아 최빈국의 미얀마 경제가 수렁에 빠져 있다. 가난한 서민들은 어찌 살꼬? 쿠데타 전에는 미얀마의 잠재력을 보고 한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가 경쟁적으로 투자하던 나라였다.

### 엄해경, 오남숙 님 환영합니다.

한빛 주간보호실의 운영위원이신 엄해경 님과 한빛 여성회원인 오남숙 님이 새 기부회원으로 등록하셨습니다. 반갑고 고맙습니다. 또 오승선/배순석 부부가 월 기부액을 올려주셨네요! 각별 한 뜻 새기겠습니다.

월 3,000원으로 어린이잡지 2권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주위에 기부를 권해주세요.

## 어린이잡지를 선물해주신 귀한 분들

( )은 입금 월

- 월 132,000원 : 김윤원(7, 8)/ 재단이사, 미국 교민)
- 월 66,000원 : 스텔라(7, 8)/ 미국 교민)
- 월 50,000원 : 백진양(7, 8) 최재화(7, 8)
- 월 30,000원 : 김광숙(7, 8) 김원경(7, 8) 이택규(7, 8) 조재선(7, 8)  
최준수/조정복(7, 8) 최광규(6, 7, 8)
- 월 20,000원 : 김명국(7, 8)
- 월 15,000원 : 김부예(7, 8) 김정숙(6, 7, 8) 예옥석(7, 8) 오승선/배순석(7, 8)  
이정애(7, 8) 조정복(7, 8) 최정복(7, 8)
- 월 12,000원 : 성경희(7, 8)
- 월 10,000원 : 강수연(7, 8) 강예슬(7, 8) 강제숙(일산/7, 8) 구은희(7, 8)  
구자명(7, 8) 권지명(7) 김정화(7, 8) 김혜명(7, 8) 박봉희(7, 8)  
박정희(7, 8) 유문숙(7, 8) 이지영(7, 8) 정영만(7, 8)  
정현필(7, 8) 조수연(7, 8) 최영삼(7) 한동훈(7, 8)
- 월 9,000원 : 김유재(7, 8) 심선우(7, 8) 오남숙(7, 8) 최명숙(7, 8)
- 월 6,000원 : 김순이(6, 7, 8) 배일택/엄지은(7, 8) 윤소암(7, 8) 이민희(7, 8)  
최정임(7, 8) 현은옥(7)
- 월 5,000원 : 강명희(7) 김미숙/김민호(7, 8) 김원숙(7, 8) 김원심(7, 8)  
김정묘(7, 8) 박정애(7, 8) 배순호(7, 8) 엄해경(7, 8) 유주희(7)  
윤신숙(7, 8) 한미자/정의정(7, 8)
- 월 3,000원 : 강제숙(7, 8) 김미경(7, 8) 김병진(7, 8) 김연수/김인숙(7, 8)  
김연옥(7, 8) 김원애(7, 8) 김원희(7, 8) 김장순(7, 8) 김종배(7, 8)  
김홍원(7, 8) 김홍주(7, 8) 노길용(7, 8) 문해성(7, 8) 민성숙(7, 8)  
배성재(7, 8) 배수현(7) 백마강(7, 8) 백정현(7) 서판임(7, 8)  
손미연(7, 8) 심혜숙(7, 8) 안영실(7, 8) 오세현(7, 8) 오순희(7, 8)  
이미경(7, 8) 이수원(7, 8) 이언희(7, 8) 이유진(7, 8) 이은옥(7, 8)  
이풍연(7, 8) 이현숙(7, 8) 이현주/최희자(7, 8) 임경희(7, 8)  
임승규(7, 8) 전교수(7, 8) 정미선(7) 정성용(7, 8) 조말연(7, 8)  
최광선(7, 8) 최종홍(7, 8) 한영원(7, 8) 홍복표(7, 8) 홍혜경(7, 8)
- 미얀마 회원 월 2500원 : 탄카잉(7, 8), 난다코코(7, 8), 배찬다(7, 8), 조린(7, 8)
- 월 2,000원 : 띠띠쉐(7, 8), 탄커투(7, 8)



## 방정환 선생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가난하던 시절의 방정환 선생처럼 미얀마의 전기 없는 농촌학교와 보육원에 어린이잡지를 보내주세요.

### 방정환기금 입금계좌

국민 640601-04-006175

신청전화 : 02)393-0661

(월 3,000원부터)